

북구, 광주 자치구 첫 '지역사랑상품권' 추진

“소비 촉진·지역경제 활성화” 이달 중 조례안 의회 상정 내년 하반기 목표 통과 후 혜택 등 논의...예산 확보 ‘관건’

광주 자치구 중 최초로 북구가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추진한다.

17일 북구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 북구 북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의 취지는 북구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북구사랑상품권' 발행으로 관내 소비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여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발의 배경은 지난 9월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등 4

만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했던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금'의 후속 대책 차원이다.

당시 북구는 저소득 주민 생계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 내수 활성화를 위해 구비 40여억원을 투입했으나, 지원금이 북구뿐만 아닌 광주 전역에서 사용 가능한 광주상생카드를 통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책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광주에는 시내 전역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 '광주 상생카

드'가 있으나, 5개 자치구 중 해당 자치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에 북구는 '북구사랑상품권'이 발행, 유통되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 북구민 복리증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구는 다음 해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조례안을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북구의회 제209회 제2차 정례회에 맞춰 상정할 계획이다.

북구사랑상품권의 사용 방법, 혜택 등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안 통과 후 확정될 예정이나 발행 형태는 현재 '중진식'의 광주상생카드와 연계한 선불식 카드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북구 관내 광주상생카드 가맹점에서

광주상생카드를 사용할 경우 기존 혜택에 북구사랑상품권만의 혜택도 같이 누리는 방식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로 실제 금액보다 더 싼 가격에 구입이 가능하거나 사용 금액 일부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발행, 운영된다. 이 때 발생하는 '혜택성 차액'에 대한 재정적 부담은 발행 기관에서 한다. 때문에 북구 역시 예산 확보가 사업 추진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북구 관계자는 "다음 해 본예산 계획에 북구사랑상품권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며 "조례 통과 후 발행 규모에 대해 논의하고, 확정되면 추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재영 기자



남구 “7979봉사단 운영 이원화”

전문 기술 보유자 중심—일반 주민 참여 확대

광주 남구는 17일 “관내 17개 동에서 활동 중인 7979봉사단(사진)을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원화 체계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7979봉사단은 1천80명으로 이중 5%가량은 전기·수도·가스 수리 등 전문 기술을 가진 이들이다.

나머지는 주로 전문 기술이 필요 없는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

앞서 7979봉사단은 ‘행복한 복지 7979센터’에 각종 불편 사항이 접수되면 현장 출동해 민원을 해소해 왔다.

활동 대부분이 전기류 고장, 수전 교체, 이·미용 봉사 등 전문 종사자가 필요한 것들이어서 일반 주민들은 봉사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중

종 발생해 왔다.

이에 남구는 일반 주민에게도 다양한 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관내 17개 동을 대상으로 ‘마을별 봉사대 이’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봉사단원들은 기존의 민원 접수 후 출동 방식에서 자발적으로 주택가 주변 청소와 취약계층 집안 정리 및 마당 제초 작업, 계단 안전바 설치, 노후 멀티탭 교체 등의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

남구 관계자는 “마을별로 봉사단원들이 자체적으로 봉사활동 수혜 대상자 선정 및 봉사 활동의 내용을 결정하다 보니 봉사단의 활기도 샘 솟고 있고, 봉사단 운영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성학 기자

동구, ‘소소한 삶 기술...’ 진행

조선이공대와 지역 청년 교육

광주 동구는 “최근 조선이공대학과 함께 지역 청년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일상에서 소소한 재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소소한 삶 기술 채우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선이공대 내 자동차 실습장에서 진행된 ‘자동차 셀프 점검·수리 실습 교육’을 통해 참가자들은 첨단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식은 물론 전기차·고전압 배터리 기술을 포함한 자동차 점검 기술을 습득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청년들이 다양한 기술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라며 “인구 감소 시대의 문제를 지역 대학과 손을 맞잡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재영 기자



서구 ‘여성친화도시 성과공유회’ 개최. 광주시구는 지난 15일 청사에서 김이강 서구청장과 전승일 서구의회의 의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여성친화도시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광주서구 제공>

서구,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의결

위원회 회의서 2025-2029년 5대 전략·17개 목표 수립

광주 서구는 “최근 서구청 나눔홀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회의를 통해 서구는 주요 중장기 행정 계획에 대한 지속가능성 사전 검토제에 대해 논의하고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2025-2029년) 작성안을 심의, 의결했다. 앞서 지난 4월 수립된 ‘지속

가능발전 기본전략 2040’을 바탕으로 서구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세부목표·지표·세부사업 체계가 포함된 추진계획에는 세부실행계획 등이 담겼다.

서구는 ‘미래세대가 행복한 지속가능발전 도시, 서구’를 비전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생태공동체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문화공동체 ▲스마트

혁신으로 활기찬 경제공동체 ▲모두를 포용하는 평화공동체 ▲참여와 소통의 자치공동체 등 5개 전략과 17개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서구는 지난 6-10월 ‘민관 협력 지속가능발전 TF팀’을 운영해 작성 및 논의를 거쳤으며, 7월과 9월에는 주민참여단 및 분과위원회 운영으로 주민대표와 각 분야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된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서구 정책을 추진해 가겠다”며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정책들을 통해 주민의 생활에도 지속 가능한 개념을 녹여들게 해 미래세대가 행복한 착한도시 서구 구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반기 사전검토 대상 행정계획은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과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5개년 계획’으로 다음 달 중 검토할 예정이다.

/주성학 기자

광산구 내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 증가

올해 10월 기준 작년 12월 보다 62곳·22% 늘어

광주 광산구는 17일 “지역 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과 지정률 제고 노력으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매우 우수, 우수, 좋음 등 3단계로 등급을 부여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인증제도다.

올해 10월31일 기준 광산구 지정업소는 343개로 지난해 12월31일 기준 281개 업소에서 22% (62개) 증가했다.

광주시 전체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1천146곳으로, 광산구의 지정업소가 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광산구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종량제봉투 제공, 위생등급 표지판 설치, 구 누리집 지정업소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안전한 음식문화가 확산하도록 지속해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알리고 신규·연장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위생적이고 청결한 음식점을 인증하는 위생등급제 지정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육근 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원호
220603-중-139779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